

## 5장 속죄제 (2), 속건제

### 1. 속죄제를 드리는 다른 경우들 (5:1-6)

속죄제를 드리는 다른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5:1-4). 증인이 되어서 진술하지 않은 경우,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과 접촉하였을 경우, 부주의하게 맹세하고도 시기를 놓쳐서 지키지 못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렸다.

그러한 경우에는 먼저 ‘아무 일에 범과하였다’ 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암컷 어린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렸다(5:5-6).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관한 것을 회개하고 갚는 것인데, 부정한 상태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 것을 갚는 의미가 있다. 속건제에 관하여서는 5:14-19에서 더 상세히 나온다.

### 2. 가난한 자와 극빈자의 속죄제 (5:7-13)

가난한 자가 드리는 속죄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이 죄를 속하려 하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여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다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드렸다. 그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먼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피를 단 곁에 뿌리고 단 밑에 흘렸다. 이어서 다른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면 그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5:7-10).

둘째, 그의 능력이 비둘기를 드릴 정도도 되지 못하면 고운 가루 예바 십분의 일(약 1.5킬로그램)을 제사장에게 가져갔다. 그렇지만 소제물과 달리 기름과 유향을 놓지 않았다.<sup>1)</sup> 제사장이 가루 한 움큼을 단 위에 불로 사르면 그것이 ‘속죄제’였고 그의 죄가 속함을 입었다. 나머지 곡물은 소제물처럼 제사장에게 돌렸다.

### 속건제 (5:14-6:7)

속죄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속건제를 다루기 때문에 두 가지 제사를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있는 제사다. 정혼한 여종과 동침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는데, 이것도 재산상의 피해를 변상한다는 뜻이 있다(19:20-22).

5:14-19에서는 성물에 대한 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기록하고 6:1-7에서는 거짓 맹세한 것에 대한 속건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3. 성물에 대한 속건제 (5:14-19)

성결 법전을 어겼을 때에 속건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대한 속건 제물로는 숫양을 바쳤고, 또한 숫양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사장에게 주었다. 숫양뿐 아니라 오분의 일을 더하여 갚도록 함으로써 성물에 대한 죄가 중대함을 가르쳐 주었다.

#### 묵상과 실천:

#### 속죄제의 여러 가지 경우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5장 초반부에서 구체적으로 말한다. 증인이 되어서 진술하지 않거나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에 접촉한 경우, 부지 중에 맹세한 경우 등을 열거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속건제를 드리되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르쳐 줌으로써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하셨다.

속죄제는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논의되었다. 성소에 피를 뿌리는 경우는 수소를 제물로 드렸지만, 다른 경우는 숫염소, 암염소, 어린양, 비둘기, 곡물 가루[소제]로 드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죄에

1) 기름과 유향을 첨가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다. 혹은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슬픔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제물도 다르게 함으로써 죄에 경중이 있음도 가르치셨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함으로써 사람은 어느 계층에 속하였든지 모두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뿐 아니라 족장과 개개인,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멀리하도록 속죄제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지만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서는 여호와와 종의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하신다(사 53:10). 여호와와 종의 완전히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온전한 보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우리로서는 더욱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초청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 규례들을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맛보는 자들로서 우리는 더욱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

#### 5장 익힘 문제

1. 1) 이스라엘 백성은, 증인이 되어서도 진술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경우, 부주의하게 맹세를 어긴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때의 예물은 무엇이었습니다? (6절)
- 2) 가난하여서 그것을 드릴 수 없다면 무엇으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까? (7절)
2. 1)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경우의 예물은 무엇이었습니다? (11절)
- 2) 그 경우에 소제물과 달리 무엇을 붓거나 놓지 말아야 했습니까? (11절)
3. 1) 속건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까?
- 2) 성결 법전을 어겼을 때에는 어떠한 제물을 바쳤고, 제사장에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